



센트럴키즈어린이집, 나눔장터 수익금 전주사랑'에 기부

전주시 송천동의 한 어린이집이 소외된 이웃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센트럴키즈어린이집(원장 이해상)은 28일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성금 40여만 원을 전주사랑'에 기부했다. 이 성금은 센트럴키즈어린이집 직원과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한 '아빠다 나눔장터'에서 모금된 수익금으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해상 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따뜻한 나눔 활동에 동참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작은 정성을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군산중앙중-군산자복센터, 방역담당자 응원 행사

군산중앙중학교 청소년가족봉사단 VF(대표 교사 김은애)는 지난 24일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일선 방역 담당자 응원 행사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군산중앙중 청소년 가족봉사단 VF는 그동안 매년 가족봉사단 학생들이 교내외 지역사회 및 해외단체와 연계해 다양한 배려활동에 대해 봉사로서 꾸준히 참가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 사회분야에서 방역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 행사를 기획했다.

코로나19로 장시간 고생하는 방역 일선 담당자(의료, 운반, 안전)들을 위해 군산시 보건소,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 경찰서,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응원 물품을 전달했다. /장은성 기자

사랑의 연탄 나눔 '구슬땀'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 6000장 저소득 가구에 전달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단장 박병철 노조위원장)은 28일 전주시 완산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박병철 단장을 포함한 봉사단원 50명은 전주연탄은행(대표 윤국춘)에 연탄 6,000여장을 기탁하고 완산동 저소득층 10가구에 직접 연탄을 배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이날 연탄 나눔은 14대 전북농협 노조위원장 취임식 행사를 간소화하는 대신 코로나19로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세대를 위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윤국춘 전주연탄은행 대표는 "코로나 19 여파로 연탄 수급 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전북농협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병철 노조위원장은 "임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전달



한 연탄이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은 나눔의 손길을 전하고 지역 공동체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은 600여명의 전 임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따뜻하고 온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달 급여의 0.5%를 적립하여 코로나 19 극복 성금, 수해피해 지역 물품 전달, 농촌 일손돕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남원시 동충동,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지원

남원시 동충동 맞춤형 복지팀과 직원들은 지난 27일 관내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했다.

이번 주거환경개선 대상자는 72세 장애 및 정신질환 부부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어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였다.

특히, 이들 부부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고 있었으며, 집안 청소를 제때하지 않아 온 집안이 악취 등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 극히 불량한 위생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다.

이날 동충동 맞춤형 복지팀은 방과 부엌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등 집 내·외부 정리정돈 등 청소를 통해 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영양공급 도시락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생크레와 도배 및 장판도 교체해 줄 예정이다.

황금숙 동장은 "오랜 은둔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대상자분이 오늘을 시점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휴비스 전주공장, '엄마의 밥상'에 1000만원 성금 기탁

(주)휴비스 전주공장이 6년간 지속돼온 '엄마의 밥상' 사업의 든든한 후원자로 앞장서고 있다.

(주)휴비스 전주공장(공장장 현종철)은 28일 아침밥을 굽는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 따뜻한 도시락을 배달하는 '밥 굽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사업에 써달라며 전주시에 1,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지난 2015년부터 전주시의 '엄마의 밥상'과 '지혜의 반찬' 사업에 매년 2,000만원을 후원해 온 (주)휴비스 전주공장은 올해에도 상·하반기에 각각 1,000만원씩 기부하면서 총 누적 기부금이 1억2,000만원을 넘어섰다. (주)휴비스 전주공장은 이외에도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연탄과 학습장비를 지원하는 등 나눔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300여명에 달하는 '엄마의 밥상' 대상 아동들의 간식과 생일 케이크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현종철 공장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아침밥 한 끼를 책임진다는 생각이 지속적인 후원을 결심하게 한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남원시에 후원금 전달

남원시는 28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문정훈)가 후원금 2,400만원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 후원금은 투게더를 알고 있는 아버지를 돌보는 10세 아동의 안타까운 사연이 KBS 1TV 프로그램 '동행'을 통해 소개가 되면서 3개월간의 방송모금과 온라인 모금으로 마련되었으며, 후원금은 의료비, 생계비, 주거환경개선비, 피복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조환익 주민복지과장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후원해 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9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고창지사 563-699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65	김제지사 545-1227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65	진안지사 433-3004
효지지사 010-8645-9335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6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익산지사 658-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원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